NH농협손보, 화훼 소비촉진 위한 꽃 나눔행사

NH농협손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꽃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최창수 대표이사(오른쪽)는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소야원예힐링센터를 방문해 2000만원 상당의 꽃과 화분을 한국원예치료사협회에 전달했다. 전달한 꽃과 화분은 원예를 활용한 심리치료에 사용될 예정이다. /NH농협손보

부영그룹, 군부대에 설 위문품 전달

부영그룹이 설 명절을 맞아 군부대에 간식선물세트를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영그룹은 자매결연을 맺은 1군단, 8군단, 22사단, 25사단, 공군방공관제사령부,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 등 6곳에 총 2600개 상당의 간식선물세트를 전달했다. 기증된 위문품은 군단 본부 및 예하 부대에서 임무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쓰인다. /부영그룹

DB손보, '뉴 소비자 시대' 소비자 보호헌장 선포

DB손보는 '뉴(New)소비자시대' 소비자보호헌장을 선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소비자중심 경영활동의 일환이다. 선포식은 사내 기획방송을 시작으로 전국 부서가 참여해 전 직원의 소비자보호헌장 및 완전판매 준수서약으로 진행한다. 이대진 DB손해보험 소비자정책팀 상무(앞줄 왼쪽 여섯번째)와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DB손해보험

더클래스효성, 프로골퍼 이정은6 선수 후원 연장

더클래스 효성이 프로골퍼 이정은6 선수를 2022년 말까지 후원하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더클래스 효성은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로, 이정은6 선수에 더클래스 효성 로고가 표기된 의류를 제공하고 홍보 활동에 초청하고 있다. CLS 450 4매틱 AMG 라인 차량도 지원한다. /더클래스효성

제주삼다수, 무라벨 이어 脫 플라스틱 도전

제주개발公, 그린 홀 프로세스 본격화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주삼다수를 중심으로 친환경 경영을 강화하는 비전을 15일 발표했다.

제주개발공사는 올해 'ESG(환경, 사회공헌, 지배구조) 선도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원년으로 선포하고 이산화탄소 저감을 통한 생산부터 수거, 새활용(업사이클)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국내 유일의 친환경 사업 모델인 '그린 홀 프로세스' 경영을 본격화한다.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 무라벨 생수 출시를 시작으로 재생 페트 사용, 바이오 페트 개발 연구 등 2030년까지 플라스틱 50% 절감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구축에 착수했다. 또한 공사 내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이산화탄소 절감을 지속적으로 이뤄 나갈 계획이다.

제주개발공사는 2025년까지 2020년 대비 플라스틱 사용량을 25%를 줄이고, 2030년까지는 50%까지 감소시키는 등 '탈 플라스틱'에 도전한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5210원 vs 8720원

이상헌의 창업 칼럼

"소득 불평등을 축소하겠다고 최저임금을 극적으로 인상하면 일자리가 감소해 품위 있게 살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빈곤층이 고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인상에 대한 유명 석학이자 경제학자인 워런 버핏과 찰리멍거의 말이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의 추이를 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9.5%의 인상을 가져왔으며 2020년은 2.9%, 그리고 올해는 1.5% 증가했다.

그중 2018년은 16.4% 인상(6470원에서 7530원)으로 그동안의 임금 인상폭보다 최대로 인상됐고, 반면 2021년은 8720원으로 2020년의 8590원에 비해 가장 적은 1.5% 인상에 그쳤다.

임금인상에는 여러 가지의 사회적 이슈와 경제적 여건이 고려된다.

하지만 현실은 노동시장의 평균을 수렴하는 방법이 대부분의 결정방법이었다.

임금의 절대적 수준과 그 인상률에는 노사정위원회라는 합의를 위한 협의 기구가 존재하지만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경제적 필연성으로 인상률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금인상의 속도와 규모가 노동시장에 가져올 후폭풍도 무시할 수가 없다.

소위 말해서 4차산업의 발전과 IT, IOT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인력 대체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특히 인건비의 상승으로 경영환경이 나빠지면서 경영자들은 회사나 매장운영비중 인건비의 포션을 줄이거나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천하고 있다.

소위 알바 쪼개기를 통해 퇴직금과 시간외수당을 줄이고 키오스크의 등장으로 그나마 있던 일자리마저 사라지는 현상이 노동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비단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적 서비스의 증가와 방역지침의 준수로 인한 사회적 변화라고만 치부하기엔 한계가 있는것이 분명하다.

소위 증가한 매장 내 키오스크숫자에 최저임금(8720원)을 곱하고 거기에 주당 60시간을 곱하면 최소한의 고용 감소량을 유추할 수 있다.

그만큼의 일자리가 감소했으며 감소한 일자리는 소위 차상위계층이나 차차상위계층이라 불리는 서민층의 일자리였을 확률이 지배적이다.

결국 찰리멍거가 예견한 급격한 임금인상은 인상 폭에 민감한 저소득층에 더 치명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예견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는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2018년과 2019년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지출증가에 따른 수익감소로 못 버티고 폐업한 소상공인 역시 역대 최고의 폐업률을 기록했다.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인상은 경영자입장에선 경상비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나타난다. 따라서 경영자 입장에선 임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할 수 밖에 없었고 그 방법이 코로나19라는 언택트 소비환경과 비접촉 구매행위의 권유로 인하여 기계적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무인 자동화 시스템의 등장이 오히려 고용의 감소와 함께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는 고용시장의 현실이다.

참으로 암울하다.

고용시장의 유연성도 중요하고 노동자 삶의 윤택함도 중요하다.

하지만 일자리의 물리적 규모축소와 노동품질하락이 인위적 정책의 방향성이 의한 결과가 아니길 바라본다.

/브랜드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 (컨설팅학 박사)

배달의민족, 소상공인과 상생협력 문화 조성

전국가맹점주協과 상생협의회 구성
악성리뷰 관리 등 실질적 지원나서

우아한형제들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1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상생협약식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우원식 의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하승재 공동의장, 이낙연 대표,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이용우 의원(왼쪽부터). /우아한형제들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소상공인과 건강한 상생협력 문화 조성에 나선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협약을 맺고 상생협의회 구성을 통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15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을지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와 상생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식에는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이사와 전가협 하승재 공동의장, 이번 협약을 중재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이학영, 이용우 국회의원이 입회인으로 참석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와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해 양측의 상생협력을 축하했다.

양 측은 배달의민족과 이를 활용하는 외식업 소상공인과의 건전한 상생협력 문화 조성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해 이번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서비스 이용 전반에 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먼저 배민은 사장님이 단골 고객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사장님에게 고객 전화번호를 좀 더 쉽게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키로 했다. 또 주문 접수 시 고객의 과거 주문 횟수를 보여주기로 했다.

이용자가 남기는 리뷰에 대해서도 사장님 요청 시 악성리뷰를 일정 기간 게시하지 않도록 해 자영업자가 피해 보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간의 갈등 시에도 배민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가맹점 간 영업지역으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고자,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단체가 해당 가맹점의 동의를 얻어 배민에 요청할 경우 가맹점 영업지역을 기준으로 배달구역을 정하기로 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인사

◆**씨젠** △경영지원총괄 김범준(영입)

◆**외교부** ◇과장 인사 △영토해양과장 오성탁

◆**인천국제공항공사** ◇처장/실장 △사회가치추진실장 김창규 △통합운영센터장 유구종 △공항산업기술연구원장 임병기 △터미널시설계획처장 천정이 △수하물운영처장 박금암 △허브화전략처장 김형신 △스마트공항처장 김상일 ◇ 팀장 △예산팀장 양화열 △공항운영1팀장 임채운 △총무팀장 양장식 △항공통신팀장 전영근 △안전품질팀장 이동목 △항행시설팀장 이정환 △IBC-Ⅲ 1단계 기반시설공사TF팀장 안봉찬 △물류개발팀장 김종훈 △조경팀장 김정태

◆**통일부** ◇고위공무원 승진임용 △정세분석국장 홍진석

부음

▲ 김명백씨 별세, 정기형(KNN 사회부 기자)씨 외조모상 = 15일 오전, 대구전문장례식장 특101호, 발인 17일 오전 6시 40분. 053-961-4444

▲ 최준구(전 철도청 근무)씨 별세, 김남순씨 남편상, 최영란·최영준(자영업)·최경희(모도어패럴 대표)·최윤관(한국교통안전공단 근무)씨 부친상, 박준철(스타뉴스 발행·편집인)·이양국(자영업)씨 장인상 = 15일 오전 10시10분, 충북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7일 오전 8시. 043-423-0044